박영숙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인사말로 작성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신 후 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10일) 사무실에 오실 때 가져오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기태 드림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웹사이트 인사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입니다. (사진)

지난 세기 우리 인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누려 왔으나, 그 이면에 사회적 약자의 소외,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을 비롯한 생태계의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2년 브라질 리오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원칙인 '리오선언'과 실천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세기 인류가 빚어낸 지구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종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 가려는 지구촌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정상급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계획인 「WSSD 이행계획」과 그 실천의지를 담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21세기

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따른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21세기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 경제, 사회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정자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9.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